

‘이용옥본-류(類)’ <지장본풀이> 의미 연구

김유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에서 지장 아기씨가 사후 새[鳥]로 화하지 않는 각편들을 ‘이용옥본-류(類)’로 명명하고, 이들의 서사적 특징과 발생 동인 및 의미를 해석소통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지장본풀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안사인본’을 선본으로 삼아, 지장 아기씨가 선업을 쌓았음에도 새로 화하여 쫓겨나는 결말의 개연성 부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료인 강대원본을 포함해 15편의 각편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지장 아기씨가 새가 되지 않는 각편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이는 텍스트의 독자이자 창조적 전승자인 심방이 지장 아기씨의 수난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신앙민의 구원 기대에 적극 응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용옥본-류’는 지장 아기씨가 통부처나 지장보살로 좌정하거나 인간으로 남는 결말을 통해 신앙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한편, 타인을 향한 적극적 실천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환기한다.

주제어: 지장본풀이, 제주도 서사무가, 이용옥본-류, 해석소통, 창조적 전승자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국어교육 전공)

1. 들어가며

<지장본풀이>는 지장 아기씨의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주 서사무가로, 제주도 큰굿의 시왕맞이와 양궁숙임 제차(祭次), 작은 굿인 거무영청대전상 등 죽음과 관련된 제의에서 오늘날까지 구연되고 있다. <지장본풀이>는 심방이라면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각편이 전해지고 있으나 기존 논의는 주로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 안사인본은 다른 각편에 비하여 충실한 서사 단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일찌감치 선본(善本)으로 자리했다. 안사인본에 따르면, 지장 아기씨는 선업(善業)을 쌓았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후 새로 화함으로써 굿판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이는 서사무가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와 어긋나는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장본풀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장 아기씨와 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장 아기씨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이수자²⁾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수자는 지장 아기씨를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신(必死女)이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직능을 지닌 여신으로 보았다. 이수자의 연구는 지장 아기씨의 화신인 새를 부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고, 그 결과 지장 아기씨가 사후 신성성을 획득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안사인본이 지닌 내력담과 결과담 사이에 발생하는 개연성 부족에 관한 의문에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³⁾ 반면

1) 현용준은 지장본풀이 각편 7편(서월선본, 박남하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문정봉본, 정태진본, 한생소본)을 언급하며 “이들 중 진성기가 채록한 서월선본, 『풍속무음』본(문정봉본), 제주전통문화연구소가 채록한 한소생본(한생소의 잘못·인용자)은 이야기가 미완성이거나 이야기의 구성이 뒤죽박죽되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나머지 4편 가운데 “안사인본이 모티프의 빠짐이 없이 이야기가 정연”함을 들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01쪽.

2) 이수자,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9.

현용준⁴⁾은 지장 아기씨를 지장대왕이나 지장보살과 같은 숭앙 대상인 신이 아니라 구축 대상인 잡신으로 보았다. 또한 지장 아기씨의 화신인 새는 쫓아버려야 할 사기(邪氣), 곧 부정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장 본풀이가 새드림과 같은 창법으로 불리며, 시왕맞이에서 시왕과 차사, 사자 등 숭앙의 대상에 대한 의례가 모두 끝난 다음에 구연이 된다는 점 등 제의 맥락 속에서 지장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앞선 논의와 구별된다. 그러나 여전히 착한 일을 한 지장 아기씨가 부정한 존재가 된 이유를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김현선⁵⁾은 지장 아기씨가 성과 속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이며, 자신을 희생한 지장 아기씨가 사악한 새로 환생하는 것은 지장보살에 비견되는 희생정신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는 지장 아기씨의 화신인 새를 사악한 존재로 보며, 서두와 결말 사이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비약에 대해 시왕맞이, 나가시리도전침 등 지장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차와의 관련 속에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전주희와 신호림의 연구는 지장 아기씨의 새-되기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장 아기씨와 새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구별된다. 전주희는 지장 아기씨를 초월적 능력이 없었기에 신이 되지 못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기운을 지니고 있었기에 부정한 존재인 새로 환생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지장 아기씨는 “원혼과 무주고혼들을 적극적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부정한 것의 본초”이자, 설명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행위적 모델”⁶⁾이 된다. 전주희의 논의는 지장 아기씨가 본디부

3) 이수자는 지장아기가 죽어서 새몸(鳥)으로 환생하는 결말을 지장아기가 사후 신성성을 획득하는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지장본풀이>가 일반적인 영웅의 일생담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장이 새몸으로 환생하는 것이 신성성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후속 논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427~428쪽.

4) 현용준, 위의 책, 100~109쪽.

5)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터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지장 아기씨의 서사에 인과적 개연성을 부여하고, 기존 논의들과 달리 지장본풀이를 신화적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닌 부정한 기운의 근본을 설명하는 서사무가로 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호림은 지장 아기씨를 “모든 원한을 떠안고 희생되지만, 새가 되어 이에 저항함으로써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는 자신과 같은 ‘희생양’들의 무고함을 단호하게 제시”⁶⁾하는 존재로 보았다. 지장 아기씨가 신으로 좌정하지 않고 스스로 새가 됨으로써 “희생양 만들기의 허위성과 폭력성을 드러낸다”⁸⁾고 봄으로써 지장 아기씨의 새-되기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구별된다.

조현설⁹⁾은 불교의 지장보살 본생신화와 <지장본풀이>를 비교하고, 지장 아기씨가 겪는 고난과 무속 의례를 통한 극복 과정을 제주 심방 집단의 정체성을 담은 자기서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지장 아기씨의 생전 새남굿과 사후 새드림의 주체를 지장 아기씨와 지장 아기씨의 위력에 기댄 심방으로 구분함으로써 <지장본풀이> 서사에 모순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상의 <지장본풀이> 연구들은 지장 아기씨를 여신, 구축 대상, 양면성을 지닌 존재, 희생양, 심방 집단 등 다각도로 해명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안사인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장 아기씨의 내력과 결말 사이의 개연성 부족, 곧 ‘선업을 쌓은 지장 아기씨는 왜 새로 화하여 쫓겨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 안에서 이뤄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진오¹⁰⁾의 연구가 주목된다. 한진오는 지장 아기씨

6)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31, 한국무속학회, 2015, 200쪽.

7) 신호림, 「<지장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투기된 타자」, 『문학치료연구』 70, 한국문학치료학회, 2024, 258~259쪽.

8) 신호림, 위의 논문, 2024, 262쪽.

9) 조현설, 「지장보살 본생신화의 창조적 부정과 심방 집단의 자기서사 -<지장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49, 한국무속학회, 2024.

10) 한진오, 「<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와 연행방식 고찰 - 지장과 새의 의미, 연행방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가 사후 새로 환생하지 않고 서천 꽃밭에 통부처로 좌정하는 결말에 주목하여, 안사인본과 달리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신앙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형이 존재함을 밝혔다. 그러나 안사인본 중심의 기존 연구 경향은 이용옥본과 같은 결말을 지니는 <지장본풀이> 각편을 일탈적 각편으로 보고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최근 간행된 강대원본¹¹⁾에서도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화하지 않는 결말이 재확인됨에 따라, <지장본풀이>의 새로운 유형적 가능성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장본풀이> 각편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가 놓친 지점들을 점검하고, 안사인본과 다른 결말을 지닌 각편들의 서사 양상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이가 발생한 동인과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화하지 않는 결말이 신앙민들에게 환기하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지장본풀이> 각편 현황과 서사적 특징

<지장본풀이>는 현재까지 곳에서 불리는 만큼 다양한 각편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¹²⁾ 문자로 기록하여 정식으로 출판된 각편만을 추려 출판된 연도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³⁾ 『풍속무음』의 경우 이두와 한글 표기가 병용되어 있으며, 연구자 목적으로 채록·전사된 자료집이 아니라 심방들의 지침서로 사용하기 위해 채록·전사한 자료집으로 추정된

11)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강소전 외), 『강대원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24.

12) 2011년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성읍민속마을에서 재현한 제주큰굿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서와 자료집이 문무병에 의해 비교적 최근에 간행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열째 날 강대원이 <지장본풀이>를, 열셋째 날 정태진이 <만지장본풀이>를 구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서에는 <지장본풀이> 각편이 전사되어 있지 않고, 자료집은 여섯째 날까지의 기록만 수록된 채 출간되어 <지장본풀이> 각편을 확인할 수 없다. 문무병, 『제주큰굿 연구』, 황금알, 2019.; 문무병, 『제주큰굿 자료집 1』, 황금알, 2019.

13)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과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수록된 각편의 경우 정확한 채록 시기를 알 수 없어, 일러두기에서 밝힌 조사 기간을 기록하였다.

다는 점에서 다른 각편들과 구별된다.¹⁴⁾ 기존 연구는 주로 안사인본(각편 5)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각편에 대한 검토는 이용옥본(각편 10)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옥본 이후에도 새로운 각편들이 전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1〉〈지장본풀이〉각편 현황

번호	구연자	조사자	조사 시기	수록 문헌	출판 연도
1	김만보	현용준	1965	濟州島무당굿놀이	1965
2	서월선	진성기	1956 -1963	南國의 巫歌	1968
3	박남하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1991
4	고대중	장주근	1962	韓國의 民間信仰 1	1974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001
5	안사인	현용준	1959 -196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2007
6	문정봉	문창현	1982	風俗巫音(祝祀文) 下 영인본	1994
7	정태진	문무병	1997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1998
8	한생소	문무병	1994	제주도큰굿자료: 1994년 동김녕 문순실(서순실)댁 중당클굿	2001
9	고복자	강정식 외	2006	동북 정병춘댁 시왕맞이	2008
10	이용옥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2008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9
11	양창보	허남춘 외	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12	고순안	허남춘 외	2011	고순안 심방 본풀이	2013
13	서순실	허남춘 외	2014	서순실 심방 본풀이	2015
14	김돌산	강정식 외	1984	제주도 동북신굿: 고팡민 기증 무가연구	2019
15	강대원	강소전 외	2017	강대원 심방 본풀이	2024

<지장본풀이>는 각편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지장 아기가 씨가 태어난 경위와 삶의 내력을 조망하고, 여기에 삶의 결과로서의 성격을 지닌 이야기가 덧붙여진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장본풀이의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 『風俗巫音: 祝祀文 下』 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내용은 크게 ‘출생담-내력담-결과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지장본풀이의 내력담과 결과담 사이를 연결하는 논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장 아기씨의 삶에서 변곡점으로 여겨지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지장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고, 출생담에서 내력담으로 이어지는 서사가 결과담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기존에 주로 논의되어 온 안사인본의 서사 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남산과 여산이 영험한 절에 수록재를 올린 후 지장 아기씨가 태어났다.
- ② 지장 아기씨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잘 자라서 세 살이 되었다.
- ③ 지장 아기씨가 네 살이 되던 해 조부모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죽었다.
- ④ 지장 아기씨가 외삼촌 댁의 수양딸로 가나, 그곳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 ⑤ 옥황의 부영새가 지장 아기씨를 날개로 감싸주고 하늘이 밥과 옷을 준 덕분에 지장 아기씨는 착하게 성장하여 열다섯 살이 되었다.
- ⑥ 지장 아기씨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시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잘 산다.
- ⑦ 지장 아기씨가 열여섯 살이 되던 해 시조부모가, 열일곱 살 되던 해 시아버지가, 열여덟 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열아홉 살 되던 해 남편과 아들이 죽는다.
- ⑧ 지장 아기씨가 시누이 방으로 가나, 그곳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 ⑨ 지장 아기씨가 주천강 연못에서 대사와 소사를 만나 자신의 사주팔자를 듣고, 새남굿을 권유받는다.
- ⑩ 지장 아기씨가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러 명주를 짜 두리를 만들고, 머리를 깎고 시주를 받아 떡을 만들어 죽은 가족들을 위한 곳을 한다.
- ⑪ 지장 아기씨가 살아서 좋은 일을 하고 죽는다.
- ⑫ 지장 아기씨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새로 환생한다.

서사 단락 ①번은 출생담, ②~⑪번은 내력담, ⑫번은 결과담에 해당한다. ⑪~⑫번에서 드러나듯이 안사인본의 지장 아기씨는 인간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였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새로 화하며 결과적으로 고향에서 쫓겨난다. 안사인본의 서사 단락을 기준으로 삼아 <표 1>에 제시한 지장본풀이 각편을 모두 검토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는 안사인본의 서사 단락을 각편에 존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한 것이다. 가령 안사인본 ①번 서사 단락은 '남산과 여산이 영험한 절에 수록재를 올린 후 지장 아기씨가 태어났다'이며 김만보본(각편 1)에 해당 서사가 존재하므로 서사 단락 ①에 대하여 '+'로 표기한 것이다. 이때 지칭어(명사)나 지장 아기씨의 나이, 사건의 세부 묘사(분량) 등이 각편별로 차이를 보여도 서사적 유사성이 확보되면 동일한 사건으로 보았다.

<표 2> 각편별 서사 단락 비교

각편 번호 서사 단락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①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⑦	+	+	+	+	+	+	+	+	+	+	+	+	+	+
⑧	+	+	+	+	+	+	+	+	+	+	+	+	+	+
⑨	+		+	+	+	+	+	+	+	+	+	+	+	+
⑩	+	+	+	+	+	+	+	+	+	+	+	+	+	+
⑪	+		+	+	+	+		+	+	+	+	+	+	+
⑫	+		+	+						+	+	+	+	

<표 1>과 <표 2>를 통해 각편의 채록 시기와 관련 없이 전반적인 서사 전개의 흐름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각편은 안사인본에는 있는 서사 단락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고, 수수께끼 내기나 집짓기 등 안사인본에는 없는 화소가 ⑨, ⑩번에 해당하는 서사 단락에 추가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화소들은 지장 아기씨의 탄생과 가족의 죽음, 지장 아기씨가 겪은 고초와 지장 아기씨가 자신을 희생하여 망자를 위한 곳을 올리는 서사 전개에 흐름을 바꾸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⑫번 서사 단락에서 보이는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생각보다 많은 각편들에서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환생하는 결말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내력담과 결과담의 연결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환생하는 결말이 나타나지 않는 각편은 서월선본(각편 2), 문정봉본(각편 6), 정태진본(각편 7), 한생소본(각편 8), 고복자본(각편 9), 이용옥본(각편 10), 강대원본(각편 15) 등 총 7편이다. 이 중 서월선본과 한생소본은 서사 단락의 결락이 심하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 온전한 구연본으로 보기 어렵기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5편의 각편이 지장 아기씨를 새로 화하게 두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서사 단락이 비교적 온전하면서 내용이 충실한 각편은 정태진본, 이용옥본, 강대원본이다. 다음은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환생하는 결말이 나타나지 않는 대표적인 각편인 이용옥본의 서사 단락을 정리한 것이다.

- ① 남산과 여산이 영험한 절에 수록재를 올린 후 지장 아기씨가 태어났다.
- ② 지장 아기씨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잘 자라서 네 살이 되었다.
- ③ 지장 아기씨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아버지, 일곱 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여덟 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가 죽었다.
- ④ 지장 아기씨가 외삼촌 댁의 수양딸로 가나, 그곳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 ⑤ 하늘의 부영새가 지장 아기씨를 날개로 감싸주고 하늘이 밥을 주고 지하가 옷을 준 덕분에 지장 아기씨는 착하게 성장하여 열다섯 살이 되었다.
- ⑥ 지장 아기씨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시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잘

산다.

- ⑦ 지장 아기씨가 열여덟 살이 되던 해 시부모가, 스무 살 되던 해 남편과 아들이 죽는다.
- ⑧ 지장 아기씨가 시누이 방으로 가나, 그곳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 ⑨ 지장 아기씨가 서천강 연못에서 대사와 소사를 만나 자신의 사주팔자를 듣고, 새남굿을 권유받는다.
- ⑩ 지장 아기씨가 뽕나무를 심고 누에 실을 뽑아 명주를 짜 드리를 만들고, 머리를 깎고 시주를 받아 떡을 만들어 죽은 가족들을 위한 굿을 한다.
- ⑪ 지장 아기씨가 살아서 좋은 일을 하고 죽는다.
- ⑫ 지장 아기씨가 서천 꽃밭에 통부처로 환생한다.

<지장본풀이>의 서사는 ‘삶-죽음-수난-조력’의 서사 구조가 반복된다. 안사인본과 이용옥본 모두에서 지장 아기씨의 마지막 삶의 서사에 굿이 펼쳐진다. 굿은 반복되는 죽음과 수난을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장 아기씨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 속에서 준비해 올린 굿으로 죽은 자들을 무사히 저승으로 천도한다. 이러한 지장 아기씨의 행동은 “지장의 아기씨 인간에 살아서 조은 일 헛더고”¹⁵⁾라는 평가를 끌어내며,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지장 아기씨의 좋은 일, 곧 덕업에 관한 보상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장 아기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장 아기씨 본인의 죽음이다. 지장 아기씨가 망자를 천도하고 마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삶의 이야기 대신 지장 아기씨는 죽어 두통새, 흘그새, 악심새 등 인간에게 흉험을 주는 새로 환생한다. 굿에서 지장 아기씨의 내력을 품으로써 지장 아기씨의 화신인 새들이 굿판에 소환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심방에 의해 새가 된 지장 아기씨가 굿판에서 쫓겨남으로써 지장 아기씨의 이야기는 완성된다.

1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48쪽.

이러한 결말은 앞서 지장 아기씨가 외삼촌과 시누이에게 쫓김을 당하는 서사와 대응하는 것으로, 결과담 또한 내력담에서 보이는 서사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사인본의 결과담은 망자들을 위해 정성껏 곳을 올린 지장 아기씨의 삶의 이야기를 지장 아기씨의 죽음으로 이어받으며, 나아가 지장 아기씨를 새로 환생시킴으로써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난의 서사로 끝맺고 있다. 이는 ‘삶-죽음-수난-조력’의 서사 구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안사인본은 서사 구조의 마지막 ‘조력’ 부분을 빼놓음으로써 지장 아기씨를 영원히 수난에 머물게 한다. 이처럼 지장 아기씨를 수난에 머물게 함으로써 드러나는 의미는 선행연구¹⁶⁾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용옥본이 안사인본과 구별되는 지점은 지장 아기씨가 사후 ‘새’가 아닌 ‘통부채’로 환생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장 아기씨가 죽음 이후 서사 구조의 반복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지장 아기씨는 자신의 덕업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고향에서 쫓겨나지 않고 추앙받는 존재가 된다. 이용옥본은 지장 아기씨를 서천 꽃밭의 통부채로 환생하게 함으로써 서천 꽃밭에 날아와 흥함을 주는 새들을 쫓는 존재로 자리하게 한다. 그러나 서천 꽃밭의 꽃들은 그냥 꽃이 아닌 이공본풀이나 삼승할망본풀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주화(呪花)로, 이 꽃밭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꽃감관 자리는 사라도령에 이어 할락궁이에게 주어진 바 있다. 따라서 지장 아기씨가 서천 꽃밭의 통부채가 되어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꽃을 돌보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으며, 이는 지장 아기씨에게 실제로 신격을 부여했다고 보기보다 심방

16) 김현선, 앞의 논문, 2005.;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한진오, 앞의 논문, 2009.; 전주희, 앞의 논문, 2015.; 고은영,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새드림 말명 삽입의 의미」, 『탐라문화』 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고은영, 「사록의 의미 —<삼공본풀이>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2018.; 신소연, 「<지장본풀이> 서사와 의례 연구」, 『한국무속학』 40, 한국무속학회, 2020.; 권복순, 「<지장본풀이>의 공간과 의미 층위」, 『구비문학연구』 63, 한국구비문학학회, 2021.; 정제호, 「혐오의 정치학, 그리고 ‘지장본풀이’」, 『한국무속학』 42, 한국무속학회, 2021.; 신호림, 앞의 논문, 2024.

을 포함한 신앙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지장 아기씨가 망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정성스러운 곳을 한 것에 대하여 사후의 ‘수난’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민 존재가 있으며, 그들에 의해 ‘수난’ 대신 ‘조력’의 서사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장 아기씨를 통부처가 되도록 만들었는지, 지장 아기씨가 ‘수난’에 머무는 대신 통부처가 됨으로써 새롭게 환기되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각편에 따라 지장 아기씨는 죽지 않기도 한다. 정태진본에서는 인간 세상에 남아 거리를 헤매는 지장 아기씨의 모습이, 강대원본에서는 지장보살로서 중생들을 위해 살아가는 지장 아기씨의 모습이 나타난다.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화하지 않는 이러한 각편들은 기존에 주로 논의되어 왔던 안사인본과는 다른 의미를 신앙민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들이 신앙민에게 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지장 아기씨가 새가 되지 않는 결말을 지닌 각편들을 ‘이용옥본-류(類)’라 칭하여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화하는 결말을 지니는 각편들, 곧 안사인본-류(類)와 구분하고, 다음 장에서 ‘이용옥본-류’의 발생 동인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⁷⁾

3. 신앙민의 기대와 심방 집단의 응답

3.1. ‘이용옥본-류’의 발생 동인

서사무가는 오랫동안 구전되어왔다. 구전 문학은 그 특성상 창작자를

17) 본고에서 지장 아기씨가 사후 새로 화하지 않는 각편들을 ‘이용옥본-류’로 명명한 것은, 앞선 시기에 채록된 각편들에 비해 이용옥본의 서사적 완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장 아기씨가 서천 꽃밭의 통부처로 좌정한다는 결말이 인간으로 남거나(정태진본), 또는 지장보살로 살아가게 하는(강대원본) 다른 각편에 비해 심방의 능동적 해석과 신앙민의 보상 기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 형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고의 ‘이용옥본-류’라는 명칭은 설화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결말 변이의 한 양상을 대표하는 이용옥본의 위상과 그 서사적 지향을 공유하는 각편군을 포괄하여 지칭하기 위해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알 수 없음은 물론 내용의 변화는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사무가의 경우 본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제자(심방)에 의해 전승·구연되며, 오늘날까지 특정한 제의 맥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신본풀이의 구연은 기본적으로 신의 내력을 푸는 신성한 행위라는 점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전승 및 구연 과정에서 부담이 적은 다른 구전 문학과 구별된다. 따라서 지장본풀이의 각편에서 지장 아기씨의 결말과 같은 주요 사건에서 보이는 내용의 차이는 전승 주체인 심방의 강한 내적동인을 수반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인화는 텍스트를 읽은 독자들이 “자신의 해석을 공동체의 구성원과 공유하며 타자 해석과의 경쟁·협상·조정 등을 통해 자신의 해석을 심화·확장시키는 동시에 해석 공동체의 지평을 조정하는 과정”을 해석소통이라고 보았다.¹⁸⁾ 해석소통의 관점에서 <지장본풀이>는 일종의 텍스트로 볼 수 있으며, 심방은 텍스트의 독자가 된다. 독자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적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내적 변화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용옥본-류’의 발생 동인을 <지장본풀이>라는 텍스트를 독자이자 전승자인 심방이 받아들이고, 신앙민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찾고자 한다. 심방은 텍스트를 신에게 올리는 사제자이자 신앙민들에게 텍스트를 전하는 매개자이며 동시에 텍스트의 독자이다. 심방은 사제자로서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텍스트를 마주하며, 스승으로부터 수년간의 수련을 통해 텍스트를 전수받는다. 그 과정에서 심방은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텍스트 구연(연행)에 동반되는 것들, 제의 맥락, 구연 방식¹⁹⁾, 악기 사용법, 구연 복장 등 텍스트 바깥의 것들에 관해

18) 이인화, 「소설 교육에서 해석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3, 28쪽.

19) 김현선은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을 반복창, 곧 “심방이 일어나서 본풀이를 구송하고, 나머지 소미들이 장귀와 북을 두드리면서 본풀이의 특정 대목을 반복적으로 구송하는 형식”을 따른다고 보았다. 김현선, 앞의 논문, 99~100쪽. 한진오는 소미들이 심방의 노래를 반복하되 멜로디를 변화시키거나, 소미가 주도하고 오히려 심방이 따라 부르는 사례가 있으며, 심방과 소미가 음영하는 가사가 부분적으로 다른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을 반복창에 가까운 선후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오, 앞의 논문, 2009, 64쪽.

서도 알게 된다. 또한 심방은 심방의 자격을 얻기 위해 여러 편의 텍스트를 전수받는다. 그 과정에서 텍스트들 사이를 교차하는 지점들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심방은 누구보다 텍스트와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에 관하여 많이 알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로부터 풍부한 해석을 끌어낼 수 있는 독자가 된다. 반복된 독서(수련) 과정에서 심방은 텍스트가 지닌 문제적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의문에 스스로 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안사인본의 서사 구조가 신화의 원형이라 가정했을 때, 지장 아기씨의 비극적인 일생과 타인을 위한 희생이 보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관하여 심방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일례로 강대원 심방은 자신의 지장본풀이의 결말에 관하여 자신은 “지장 아기씨의 존재를 지장보살로 이해하기에 새드림과 관련된 사실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직접 이야기한 바 있다.²¹⁾

이처럼 심방은 텍스트에 대하여 일방적·수동적 독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심방은 텍스트에 관한 자신의 해석을 반영하여 자신만의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각편의 존재는 이를 증명한다. 신앙민들이 심방을 통해 전해 듣는 텍스트는 사실상 심방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이때 심방은 자신만의 텍스트(각편)를 만드는 창조자로 볼 수 있다. 텍스트 독자로서 텍스트에 대한 심방의 해석과 텍스트가 불러일으킨 심방의 내적 변화(자기 이해)는 텍스트 변이 및 창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심방들이 생산한 텍스트(각편)들은 텍스트에 관한 심방 고유의 해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0) 이종춘 심방은 2003년 7월 21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장 아기씨는 출생 내력에 의해서 신으로 말하자면 공돌인 좋은 신이지만, 불당 바깥으로 생각하자면 나쁜 신인 새의 기원이 된다”고 답한 바 있다. 김현선, 앞의 논문, 2005, 111쪽. 이종춘 심방의 지장본풀이는 문자로 채록된 것이 없지만, 인터뷰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안사인본-류와 유사한 서사 단락을 지닐 것으로 추정된다.

21)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강소전 외), 『강대원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24, 452쪽.

22) <지장본풀이>의 결말 변이 양상을 두고, 무가의 엄격한 구연 전통에 비추어 심방 개

‘이용옥본-류’ 또한 심방 고유의 해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때, ‘이용옥본-류’에 해당하는 각편에서 지장 아기씨의 삶에 관한 심방의 해석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방이 제의 맥락 안에서 신앙민들에게 텍스트를 전할 때, 신앙민들은 텍스트의 독자가 된다. 따라서 ‘이용옥본-류’와 마주한 신앙민들이 텍스트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용옥본-류’가 지니는 의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텍스트로는 ‘이용옥본-류’에 해당하는 각편 가운데 주요 서사 단락이 빠짐없이 들어가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 이용옥본, 강대원본, 정태진본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각편에 심방 고유의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각편 분석에 심방과의 인터뷰, 심방 문서, 심방의 가게 및 입무 과정 등 심방 개인에 관한 자료 등을 참조한다. 또한 심방들은 기본적으로 서사무가 전반을 아우르고 있음을 전제하고 심방들이 여러 텍스트를 넘나들며 해석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3.2. ‘이용옥본-류’의 결말 양상과 의미

지장 아기씨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한다. 그것은 그녀의 타고난 팔자였음이 대사와 소사를 통해 밝혀지는데, 지장 아기씨는 자신의 팔자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어 죽은 가족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여 굿을 올림으로써 망자들을 천도한다. 이는 정작 자신은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다시 말해 자신의 비극적인 팔자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지장신앙의 불교적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서사무가 구연에서 심방의 해석을 단순히 자의적이거나 오독의 결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심방은 제의 현장에서 신앙민들과 오랜 기간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텍스트를 전승해 온 존재로서, 개인을 넘어선 집단의 정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옥본-류’에서 나타나는 결말 변이는 심방 개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해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 현실과 비극적 서사에 공명해 온 신앙민들이 형성해 온 집단적 정서 및 기대에 대한 사제자로서의 심방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픔을 거름 삼아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심방의 모습을 환기한다. 이는 조현설이 <지장본풀이>를 “심방 집단의 자기서사”²³⁾로 본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본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방 집단이 동일한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하면서도 심방 개인의 실존적 삶의 궤적, 입무 과정 및 신앙민의 기대에 따라 새로운 결말을 창조할 수 있는 전승 주체의 능동적 실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용옥본-류’를 구현한 심방 가운데 한 명인 1946년생 정태진은 열한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열다섯 살부터 남의 집살이를 하였으며, 남의집살이를 그만둔 열아홉 살 때부터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해 어디 가서 물었더니, 팔자를 그르쳐야 산다는 점괘를 들었다고 한다. 이후 스물한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스물세 살부터 굿판을 다니기 시작하여 스물아홉 살부터 굿을 맡아 하게 되었다는 정태진 심방은 조사자와의 인터뷰에서 “심방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시대도 좋아졌는데 제대로 굿을 배우는 사람들이 드물어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심방으로서 가장 힘든 점으로 “남의 한을 풀어주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야 하는 일이라서 애를 많이 태운다”고 답하며, 동시에 “굿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골들보다 더 애가 타고 결과가 좋으면 심방이라는 직업에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²⁴⁾

정태진 심방의 삶은 지장 아기씨의 삶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부모의 죽음, 남의집살이, 이유 없이 아픈 몸, 거부할 수 없는 팔자,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등은 한 개인의 신산한 삶이면서 동시에 심방들의 삶이었다.²⁵⁾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지도, 심방으로서의 소임을 거부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심방은 <지장본풀

23) 조현설, 앞의 논문, 2024, 54쪽.

24)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301-302쪽.

25) 동복리 본향당의 당맨심방인 1945년생 강대원 심방 또한 조부와 부친이 일찍 사망하고 신병(神病)을 오랫동안 앓았으며, 큰형이 무업(巫業) 활동을 극구 반대하여 무업에 전념하기 어려웠음을 술회한 바 있다.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강소전 외), 『강대원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24, 22쪽.

이>의 독자로서 지장 아기씨의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누구보다 그녀의 슬픔과 삶의 태도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⁶⁾ 또한 지장 아기씨의 ‘지장’이라는 기호는 심방을 포함한 신앙민들 사이에 두루 퍼져 있는 지장신앙을 환기하며, 그녀가 다른 세상에 머물며 인간사를 주무르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세상에 머무르는 인간으로 해석되도록 이끈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지장 아기씨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타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며, 공동체로부터 반복적으로 쫓겨나면서도 오히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로하는 자, 곧 심방으로 해석된다. 그리하여 독자는 지장 아기씨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생전에 쌓은 공덕을 인정받아 사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삶-죽음-수난-조력’의 서사 구조 반복 속에서, 지장 아기씨는 독자들이 기대하는 보상을 받는 대신 부정한 존재인 새가 되어 쫓겨남으로써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 지장 아기씨가 개연성 없이 새가 되어 또다시 쫓겨나게 될 때, 독자는 그것을 남의 일로 치부할 수가 없게 된다. 지장 아기씨는 심방, 곧 독자 자신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장 아기씨의 수난은 곧 독자이자 심방 자신의 수난이므로, 독자는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게 된다. 수난에 빠진 지장 아기씨를 구원했던 하늘과 땅, 대사와 소사의 도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것들을 대신하여 누군가 지장 아기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텍스트의 독자(수용자)이면서 저자(발화자)라는 독특한 위상을 점하는 심방은, 보다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역할을 자처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응답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적극적 행위의 결과가 바로 ‘이용옥본-류’라고 할 수 있다.

신앙민의 기대와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이용옥본-류’에서 지장 아

26) 이는 2023년 5월 13일에 이루어진 김영철 심방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지장보면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이 울었대요. 심방질을 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누구의 덕도 못 받고 남한테는 덕을 주는데 본인은 덕을 못 받고 우리 팔자예요.” 김희선, 「제주 「시왕맞이」에 담긴 죽음과 치유 - 굿의 의례와 본풀이, 심층 심리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무속학』 48, 한국무속학회, 2024, 69쪽.

기씨는 안사인본에서와 달리 ‘새’가 되지 않는다. ‘이용옥본-류’ 가운데 서사 단락이 비교적 온전하면서 내용이 충실한 각편으로 이용옥본, 강대원본, 정태진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결말부에서 지장 아기씨가 새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나, 이용옥본의 경우 지장 아기씨가 통부처가 되어 서천꽃밭에 좌정하며, 강대원본의 경우 지장 아기씨가 지장보살이 되어 살아가고, 정태진본의 경우 지장 아기씨는 어떠한 것으로도 변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유지한 채 거리를 헤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장의 아기씨~
 좋은 일 허엿저~
 서천은 꽃밭에~
 통부처 몸으로~
 환생(還生)을 시기난~
 서천꽃밭데~
 새 앓아 오르고~
 요 새를 드리자~27)

이용옥 심방은 1955년생으로 그의 <지장본풀이>가 채록되어 간행된 시기가 2009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알려진 안사인본의 서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용옥 심방이 지장 아기씨를 새가 아닌 통부처로 환생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용옥 심방의 인터뷰를 참고할 만하다. 이용옥 심방은 한 인터뷰에서 <지장본풀이>의 결말에 대해 “지장아기씨는 한 멋진 인생을 살았으되 말년에 승려가 되어 선업(善業)과 적덕(積德)을 쌓아 서천꽃밭의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생전에 한이 멋진 채로 죽었거나 악업을 일삼았다면 새로 환생했을 것이지만 선업을 쌓았으므로 부처가 되었다.”28)라고 설명한다. 이는 이용옥

27)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09, 226쪽. (밑줄은 인용자)

28) 한진오, 앞의 논문, 69쪽(이용옥 심방 전화 인터뷰 요약, 2009. 6. 24. 재인용).

심방이 독자로서 선업을 쌓은 지장 아기씨가 부정한 존재인 새로 화하는 결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전승자로서도 ‘안사인본-류’와 같은 결말로 서사를 구성하여 전승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저항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용옥 심방은 자신의 해석을 기반으로 착한 일을 한 지장 아기씨를 서천꽃밭의 통부처로 좌정하게 함으로써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한다. 이는 독자로서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이며 동시에 창조적 전승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강대원 심방은 지장 아기씨를 단순한 승려가 아닌 지장보살로 이해한다. 이는 불교의 맥락 안에서 지장 아기씨의 역할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이용옥본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이다. 2017년 11월 17일 구연된 강대원 심방의 <지장본풀이>를 전사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 고은영²⁹⁾은 강대원 심방이 <지장본풀이>에서 새드림과 관련된 사설을 풀지 않은 이유는 심방 본인이 지장 아기씨의 존재를 지장보살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강대원 심방과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각편에서 공통으로 지장 아기씨의 재생을 ‘새’로 보기에 (강대원) 심방 개인의 독특한 해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평함으로써 창조적 전승자로서의 심방의 역할과 새로운 각편이 환기하는 의미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강대원 심방의 지장 아기씨에 대한 독자로서의 해석은 지장 아기씨를 새로 화하게 두지 않음에서 그치지 않고, 새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며 그 새를 쫓아내는 ‘새드림’ 사설이 삭제된 새로운 각편으로 나타났다.

지장 아기씨

살아 부모 초상[祖上]

살아 먹고 씨는 목

초세남 이세남

삼세남을 올린

[음영] 지장이 아가씨 당이든 당마다 절이든 절마다

29)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강소전 외), 『강대원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24, 452쪽.

지장이 보살로
살아 갑니다.³⁰⁾

지장 아기씨의 선업은 지장보살의 역할과 유사하다. 지장보살은 석가 여래가 입멸한 뒤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중생을 구원하겠다고 서원한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부처가 사라진 세상에서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 또한 구제한다. 그러나 일체중생은 구원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장보살은 중생들을 위해 자신의 성불(成佛)을 포기한 보살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자리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지장보살은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신앙민들은 특히 죽음 이후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에서 구제되기를 지장보살에게 기대했다.

지장 아기씨의 비극적인 삶과 희생적·이타적 행위는 심방의 삶과 지장보살의 역할을 동시에 환기한다. 그녀가 공동체로부터 또다시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독자(심방)의 기대는 지장 아기씨를 지장보살로, 마침내 일체중생의 구제라는 위업을 달성하고 성불한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지장 아기씨에게 실제로 주어진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도 무속 세계관에서 서천 꽃밭에는 이미 할락궁이가 꽃감관으로 좌정해 있으며³¹⁾, 불교와 무속의 습합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지장보살과 지장 아기씨의 존재 기반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옥본-류’의 결말은 독자의 기대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승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앙민들은 ‘이용옥본-류’의 결말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지장 아기씨를 구원하고자 하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30)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강소전 외), 『강대원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24, 463쪽. (밑줄은 인용자)

31) 신호립은 이용옥본의 결말에 대하여 “심방의 해석에 따라 구관에서 자신이 모시는 신의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용옥본풀이>에서 할락궁이가 사라도령의 뒤를 이어 꽃감관으로 좌정했기 때문에 지장이기를 통부처로 전환하면 신격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호립, 앞의 논문, 2024, 258쪽.

신앙민들의 구원에의 간절한 욕망과 기대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세계의 비극을 부각한다. 지장신앙의 성행 배경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혼탁한 세상과 그러한 세상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이 필요한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있다. 다시 말해, 지장 아기씨에 대한 신앙민들의 기대에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인간사의 부조리가 반영되어 있다. 신앙민들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에 대한 보상의 허구성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인간 세계의 비극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태진 심방의 지장 아기씨는 유의미하다.

지장의 아기씨 부모야 조상들
 신가슴 올려두고 어딜로 가리요
은장의 거리로 놋장의 거리로
다 찾아 가는고 가다가 보난에
 지장새 앉아서 지장썰 감더라
 요새야 저새야 주어나 월쭈к 휘쭈к 월쭈к³²⁾

정태진 심방은 지장 아기씨를 거리를 헤매는 인간으로 남겨 둔다. 지장 아기씨를 새로 변하게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각편들과 동일하게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만, 이는 지장 아기씨의 삶에 감응하여 그녀를 부처나 지장보살로 승격시키는 적극적인 응답과는 구별된다. 지장 아기씨를 평범한 인간으로 남겨 둔 것은 독자로서 지장 아기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결과이다. 정태진본의 지장 아기씨는 선업을 쌓았지만 특별한 보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일견 억울한 일이며, 독자로 하여금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를 인간으로 두는 것은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 즉 인간사의 비극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며, 독자는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지장 아기씨가 새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녀에게

32)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308쪽. (밑줄은 인용자)

주어진 보답임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로 점철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며 소중하다. 신앙민들의 기대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장 아기씨는 영원히 우리의 곁에 머물게 된다.

이처럼 ‘이용옥본-류’ 내부에서도 지장 아기씨가 신격으로 좌정하는 결말과 평범한 인간으로 잔류하는 결말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가 구원에 대한 신앙민의 간절한 욕망을 신화적 승격으로 직접 응답한 결과라면, 후자는 비극적 현실을 객관화하며 인간의 삶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절제된 응답이라고 할 것이다.

‘이용옥본-류’의 결말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환기한다. 지장 아기씨는 생전에 두 번의 도움을 받는다. 첫 번째는 하늘의 도움이고 두 번째는 대사의 도움이다. 이는 지장 아기씨가 신적 존재의 도움으로 수난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가 되어 쫓겨날 처지의 지장을 통부처로, 지장보살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인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제의를 통해 이를 위무하고자 했던 심방의 능동적 실천이다. 타인의 비극을 도외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리는 저마다 지장보살이 되어 서로를 구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인간의 온갖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향한 인간의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에 달려 있음을 드러낸다.

4. 나가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장본풀이> 각편 결말부에서 지장 아기씨가 새가 되는 각편과 새가 되지 않는 각편으로 나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장 아기씨가 새가 되지 않는 각편들, 이른바 ‘이용옥본-류’의 발생 동인과 의미를 해석소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해석소통의 관점에서 ‘이용옥본-류’는 신앙민의 기대와 이에 대한 응답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주체의 맥락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다. 심방은 제주도 무속 신앙의 신앙민이면서, <지장본풀이>의 가장 충실한 독자이자 창조적 전승자라는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심방은 독자로서 지장 아기씨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공감과 연민의 시선으로 지장 아기씨를 이해하며, 지장 아기씨에게 더 이상 불행이 없기를, 그녀에게 행복한 삶과 정당한 대우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게 된다. 한편 심방은 창조적 전승자로서 자신의 해석과 기대를 반영하여 텍스트를 변형할 수 있다. 심방들은 신앙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 결과로서 ‘이용옥본-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앙민의 기대와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이용옥본-류’에서 지장 아기씨는 ‘안사인본-류’와 달리 부정한 존재인 새가 되지 않는다. ‘이용옥본-류’에서 지장 아기씨는 서천 꽃밭에 좌정한 통부처가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며 인간으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지장 아기씨에게 실제로 주어진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용옥본-류’의 결말은 독자의 기대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승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신앙민들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지장 아기씨를 구원하고자 하는 기대를 적극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민들의 구원에의 간절한 기대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세계의 비극을 부각한다.

‘이용옥본-류’의 결말이 부각하는 현실 세계의 비극성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타인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제의를 통해 이를 위무하고자 했던 심방의 능동적 실천은 새가 되어 쫓겨날 처지의 지장 아기씨를 통부처로, 지장보살로, 또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이처럼 타인의 비극을 도외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리는 저마다 지장보살이 되어 서로를, 나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화하는 대신 부처나 인간으로 남는 ‘이용옥본-류’의 결말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안사인본 결말의 개선된 양상으로 볼 수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옥본-류’에 나타난 결말 변이 양상

은 무속적 신의 권능이나 지장 아기씨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에 대한 저항과 자기 이해의 과정에서 서사무가 텍스트 내에 형성된 또 다른 서사적 지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용옥본-류’는 제주도 무가가 고정성만을 지닌 텍스트가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지닌 텍스트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창조적 전승자로서의 심방의 역할을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지장본풀이>의 특수성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무가 전체로 확대해 볼 수 있는 특징인지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처럼 선본으로 인정되어 온 각편과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해당 각편의 서사적 특징과 출현 동인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³³⁾ 제주도 무가 텍스트는 창조적 전승자인 심방에 의해 끊임없이 해석되고 변화한다. 무가 텍스트의 가변성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변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3) 정제호는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가 다른 각편과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조술생 심방이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사를 새롭게 구성했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정제호, 「자기서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 『고전과 해석』 34,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21.

참고문헌

<자료>

-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보고사, 2008.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현용준·현승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국립무형유산원(강정식 외), 『제주도 동북신굿: 고광민 기증 무가연구』, 국립무형유산원, 2019.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문무병, 『제주큰굿 자료집 1』, 황금알, 2019.
- 문화재관리국(김영돈·현용준), 『濟州島무당굿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4호, 문화재관리국, 1965.
- 장주근, 『韓國の民間信仰』, 金花舍, 1974.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 『風俗巫音: 祝祀文 下』 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강소전 외), 『강대원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24.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0.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09.
-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1994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당 클굿』, 제주도, 2001.
- 진성기, 『南國의 巫歌: 濟州島巫歌全集』,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
- _____,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논저>

- 고은영,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새드림 말명 삽입의 의미」, 『탐라문화』 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145~165쪽.
- _____, 「사록의 의미-<삼공본풀이>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2018, 61~86쪽.
- 권복순, 「<지장본풀이>의 공간과 의미 층위」, 『구비문학연구』 63, 한국구비문학회, 2021, 163~194쪽.

-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95~130쪽.
- 김희선, 「제주『시왕밧이』에 담긴 죽음과 치유 —굿의 의례와 본풀이, 심층심리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48, 한국무속학회, 2024, 55~97쪽.
- 문무병, 『제주큰굿 연구』, 황금알, 2019.
- 신소연, 「<지장본풀이> 서사와 의례 연구」, 『한국무속학』 40, 한국무속학회, 2020, 69~93쪽.
- 신호림, 「<지장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투기된 타자」, 『문학치료연구』 70, 한국문학치료학회, 2024, 245~272쪽.
- 이수자, 「무속신화『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9, 277~307쪽.
- _____,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이인화, 「소설 교육에서 해석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3.
-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345~373쪽.
- _____,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31, 한국무속학회, 2015, 179~215쪽.
- 정제호, 「자기서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 『고전과 해석』 34,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1, 7~32쪽.
- _____, 「협오의 정치학, 그리고 ‘지장본풀이」」, 『한국무속학』 42, 한국무속학회, 2021, 91~111쪽.
- 조현설, 「지장보살 본생신화의 창조적 부정과 심방 집단의 자기서사 -<지장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49, 한국무속학회, 2024, 35~65쪽.
- 한진오, 「<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와 연행방식 고찰 -지장과 새의 의미, 연행방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41~73쪽.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Lee Yong-ok Type” of “Jijangbonpuri”

Kim, Yuha
(Korea University)

This study designates the variants of the Jeju narrative shamanic song “Jijangbonpuri” in which Jijang-agissi does not transform into a bird after death as the “Lee Yong-ok Type” and examines their narrative characteristics, origins, and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e communication. Previous studies of “Jijangbonpuri”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An Sa-in Version” as the representative text and sought to explain the lack of narrative plausibility in its ending, in which Jijang-agissi, despite having accumulated good deeds, transforms into a bird and is driven away. However, a comparative analysis of fifteen versions, including the recently published Kang Dae-won version, confirms the existence of variants in which Jijang-agissi does not transform into a bird. This vari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the simbang (Jeju shaman), who is both an interpretive reader of the text and a creative transmitter, identifying with Jijang-agissi’s suffering and actively responding to worshipers’ expectations of salvation. In the “Lee Yong-ok Type,” Jijang-agissi either takes up residence as Tongbucheo or Ksitigarbha Bodhisattva, or remains human. These endings respond to worshipers’ expectations while also evoking the possibility that an unjust reality can be overcome and mutual salvation achieved through active engagement with others.

Keywords: Jijangbonpuri, Jeju Narrative Shamanic Song, Lee Yong-ok Type,
Interpretive Communication, Creative Transmitter

김유하

소 속: 고려대학교 박사과정(국어교육 전공)

전자우편: fluxus15@naver.com

논문투고일 2026. 8. 17. / 심사완료일 2026. 9. 10. / 게재결정일 2026. 9. 15.